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먼저 담장 너머로 모자를 던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모자를 던져버려라, 그러면 그 모자를 줍기 위해서라도 담벼락을 기어 올라가게 된다는 말이다. 이 번역을 맡을지 말지 고민할 당시 내 심정이 딱 그랬다.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몰라도 일단 모자를 던져 보자는 심정이었다.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번역이란 것을 해보게 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움으로 가득한 여정이었다. 책도 어렵고, 아나키즘도 어렵고, 크로포트킨의 문장도 어려워서 모자를 던진 것을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

일러두기

- 《빵의 쟁취》는 1892년 프랑스에서 《La Conquête du Pain》이라는 제목으로 첫 출간되었다. 이 책은 1913년 출간된 영어판 《The Conquest of Bread》를 기본으로 하였다.
- 코뮤니즘은 보통 ‘공산주의’ 혹은 ‘코뮤니즘’이라고 번역하지만, 이 책에서는 사유재산과 불평등한 임금체계가 없고, 서로 협동하는 자치공동체인 ‘아나코 코뮌’을 주장한 저자의 사상에 따라서 주로 ‘코뮌주의’로 번역했다. ‘공동체주의’라고도 한다.
- 본문과 하단에 실린 ●는 저자가 단 원주이며, 번호로 표기한 각주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윤긴이가 달아둔 것이다.

니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끝까지 담장을 기어 올라가서 모자를 주어줄 수 있었던 것은 크로포트킨이라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 덕분이었다.

크로포트킨은 귀족이었지만 ана키스트였고, 지리학자이면서도 사회 사상가였던 흥미로운 인물이다. ана키즘과 관련된 이런저런 책들에서 조각조각 묘사되는 그의 모습과 한국에도 번역된 그 유명한 자서전, 그리고 《빵의 쟁취》에서 드러나는 면모들을 보면서 나는 그가 매우 고결한 인품을 지녔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는 무수한 변절자들 틈에서 결코 변절하지 않은 사람, 수많은 중산층 사회주의자 중에서 진심으로 민중의 편에 선 사람, 이론과 개념만 앞세우는 많은 사람 틈에서 자신의 사상을 현실과 연결시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다. 동시대를 살았던 어느 ана키스트의 묘사처럼, 크로포트킨은 지성과 진실함으로 빛나는 눈만 가지고도 타인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듯하다.

그리고 이 책 《빵의 쟁취》는 그런 그가 구상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크로포트킨은 어렸을 때부터 배운 프랑스어에 아주 능숙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떠나서 유럽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중 프랑스어로 이 책을 썼다. 그래서인지 이 책에는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들과 프랑스와

관련된 예들이 많이 나온다. 크로포트킨은 이 책에서 정치, 경제, 사회, 의식주, 그리고 농업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자신의 ана키스트 코뮌주의 사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과학과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당대의 수많은 통계를 인용하고 있다.

당시 사회에 대한 크로포트킨의 날카로운 분석은 지금 봐도 전혀 낡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가령 그는 소수의 의원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19세기 의회정치의 무능함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의 형식적인 대의민주주의에 무력감을 느끼는 21세기의 청년인 내가 읽어도 무릎을 탁 칠 만큼 공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빵의 쟁취》는 지금으로부터 약 130여 년 전에 출판된 책이다. 그 이후로 전 세계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삶은 크로포트킨이 상상도 하지 못했을 만큼 많이 달라졌다. 책을 번역하면서 크로포트킨의 시대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 사이에 가로놓인 엄청난 격차를 느끼며 한숨을 내쉬는 일도 많았다. 한숨을 쉬다 보니, 왜 나는 이 책을 번역하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궁금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번역을 하는 동안 내 나

름대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했던 고민들이 내게 진정한 공부라 되었으리라고 믿고 있다.

내가 내린 결론은, 이 책의 가장 원론적인 부분들이 주는 메시지는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단순히 '일할 권리'와 더불어 '좋은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크로포트킨의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진다. '좋은 삶을 살 권리'는 임금이나 다른 어떤 것의 노예로도 살지 않을 권리이다. 삶에 필요한 의식주를 필요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유쾌하고 유익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권리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소수의 '금수저'를 제외한 많은 사람에게 이 권리는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빵의 쟁취》는 지금과는 상관없는 지나간 시대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생명이 살아갈 토대가 상실되고 있다고 느끼는 내게는 실제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묻는 책처럼 보인다.

지금 한국의 녹색당과 노동당에서는 사회적 부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누자는 취지로 기본소득 제도를 주장하

고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모두의 것이며, 모든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크로포트킨의 주장 속에 바로 이 기본소득 개념의 씨앗이 들어 있다.

금수저가 상징하는 재벌의 자손들이 가진 부는 결코 그들이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부모나 조상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크로포트킨의 주장에 따르면, 수 세대에 동안 낮은 임금을 받고 건강을 위협받으며 공장과 논밭에서 일했던 수많은 가난한 사람이 그러한 부를 만들어냈다. 세계 곳곳에서 파괴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그러한 부를 만들어냈다. 누군가의 빈곤과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 어떤 농부가 평생 지켜온 땅 위를 무지막지하게 짓밟으며 건설되는 송전탑이 그런 부를 만들어냈다.

자본을 가진 자들은 지금도 얼마 남지 않은 공공재를 오염시키고 사유화시켜서 자신들의 부를 쌓아올리는 중이다. 그들은 땅에 빨대를 꽂아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상품으로 판매한다. 아름다운 해변에 호텔을 짓고 돈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 산과 들에 스키장, 캠핑장, 골프장을 짓고 울타리를 친다. 마지막 남은 공유재인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빼앗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들 개인의 것이 아니다. 모두의 것이다. 모두가 그 땅과 공기와 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가 가진 부를 모 든 사람들에게 배당하지는 ‘기본소득’은 바로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안락하지만 동시에 잔혹하다. 크로포트킨이 책에서 말한 ‘시인의 아이’처럼 우리도 단순명료하고 윤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왜 누군가는 너무 많이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고민할 때, 누군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죽어야만 하나요?” “왜 도시에서 평평 쓰고 있는 전기를 나르기 위해서 어떤 농부는 평생 일구어온 땅을 억울하게 빼앗겨야 하나요?” “왜 행복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들이 악취를 풍기는 트럭에 우겨넣어져서 도살장으로 끌려 가야 하나요?” “우리는 이런 비참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체제의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같은 시대를 산다는 이유로 어찌면 공범일 수도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란 단지 자기기만에 불과한 말일까요?”

만약 크로포트킨이었다면 그 움푹 들어간 눈을 지그시 감고서 한참 동안 사색한 다음, 희망은 돈과 권력으로 차별화되길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평등하게 서로 협력할 능력이 있는 민중에게 있다고 말했을 것 같다. 크로포트킨은 지식인이면서도 평생 민중의 편에, 일하는 사람들의 편에 선 사람이었다.

그는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사람이 가진 선한 본성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짙막하게 묘사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좋은 교육을 받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발휘되는 진짜 능력에 대해서 그가 정말로 굳게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때문에 그의 사상은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만물이 서로 돕는 상호부조에 대해서는 깊이 탐구했지만 인간의 뿌리 깊은 욕망과 경쟁심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책 《빵의 쟁취》에서도 그런 부분은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크로포트킨은 잘 구성된 사회 체제를 통해서 개인의 경쟁심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리고 크로포트킨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가령, 누군가가 새치기를 하거나 개인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싶은 욕망을 느낄 때, 다른 이들이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크로포트킨은 이렇게 대답한다.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일종의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개인의 이기주의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는 사회를 이끄는 것이 법과 질서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

이의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합의와 협약이라고 믿었다. 나는 어떤 면에서 그 믿음을 믿는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로포트킨이 이런 협동조합들을 봤으면 기뻐했을 것 같다.

이처럼 이 책은 여전히 우리에게 뜨거운 화두를 던지는 소중한 고전이다. 하지만 책을 번역하면서 크로포트킨이라는 인물이 가진 시대의 한계를 느껴서 안타깝기도 했다. 크로포트킨이 살던 시대는 증기 엔진이 점차 실용화되면서 기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보고 크게 경이로워하던 시기였다. 당연히 생태사상은 싹트기 전이었다. 당시에는 자연이 이토록 심하게 망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사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사람만을 위한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자연을 인간이 정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땅은 갈아엎어서 농지로 만들어야 하고 나무는 베어 넘겨야 하는 대상이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자연을 정복하는 일에 쓸 수 있는 '기계'라는 강철 노예가 있다! 분명 그가 살았던 19세기에는 '정복' 할 수 있을 만한 광활하고 풍부한 자연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사는 지금 시대에는 자연을 결코 정복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이런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읽어주었으면 싶다.

크로포트킨은 특히 농업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그가 꿈꾸어 온 농업이 지나치리만큼 실현된 21세기에 살고 있는 나는 그의 구상의 어떤 부분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다. 그가 찬사를 보내는 새로운 가축 사육법과 비윤리적인 공장식 축산이 겹쳐보였다. 목초지를 농지로 바뀌서 옥수수와 비트를 심고, 더 적은 면적에서 많은 동물을 효율적으로 기르는 축산 말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미래 농업의 유리온실에서서는 현재 도시 근교나 시골지역에 황량하게 난립해 있는 대규모 비닐하우스가 보였다.

크로포트킨이 굶고 있는 민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농업 형태를 구상했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집약적' 영농에 땅을 황폐화시키는 대규모 산업적 영농이 겹쳐보였다. 자연스러운 생태계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이 땅과 모든 자연물을 철저히 대상화시켜서 이용하고 버리는 지금의 농업, 오직 식량 생산의 기능밖에 없는 농업,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희망 없는 농업이 떠올랐다.

그러나 어느 책에서 크로포트킨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생태 사상가가 되었으리라는 말을 읽은 적이 있다. 크로포

트킨 같은 진실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의 목소리를 내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그에게서 배운 셈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게 있어서 이 번역은 대화였던 것 같다. 유킨이의 말을 씌으로써 많은 것을 가르쳐 준 크로포트킨과의 대화가 드디어 끝이 났다. 오랜 망명생활 끝에 1921년 러시아에서 세상을 떠난 이 고결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현실 세상에 막 받을 내디딘 초보자 청년에게 번역이라는 큰일을 맡겨 주신 행성비 출판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 시간을 내어서 기꺼이 원고를 검토해 주신 하승우 선생님과 장길섭 선생님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하승우 선생님은 이 책에 해설을 써주신 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나의 독립을 응원하면서 기꺼이 공역자로 나서고, 뒤에서 든든한 지원을 해준 엄마에게 크나큰 고마움과 사랑을 전한다.

여연

모두를 위한 좋은 삶

모두를 위한 좋은 삶은 꿈이 아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 덕분에 그런 삶은 가능하고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문명화된 나라의 주민 중 생산하는 사람들은 3분의 1도 채 되지 않지만, 이들은 지금이라도 모든 가정에 어느 정도의 안락함을 가져다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는 그 이상도 알고 있다. 오늘날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일한 결과물을 헛되이 탕진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일을 하게 한다면, 우리의 부는 생산자들의 수에 비례해 증가할 것이고 어찌면 그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중산층 경제학의 예언자인 맬서스⁰¹가 발표한 이론과는 반대로, 인류의 생산력은 변

식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땅에 더욱 밀집해서 살게 되면 될수록 그들이 부를 창조하는 힘 역시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영국의 인구는 1844년부터 1890까지 단 62 퍼센트 증가했을 뿐인데도, 생산은 가장 낮게 잡아도 2배 정도인 130퍼센트 성장했다. 프랑스에서는 인구가 더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생산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빈번히 찾아오는 농업 위기, 국가의 방해, 혈세(징병 제도), 투기적인 상업과 금융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밀 생산량은 4배나 증가했으며 산업 생산량도 지난 8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식의 진보가 더욱 인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민자들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혹은 유럽의 과잉 노동력의 유입이라는 이유 덕분인지 미국에서는 10배나 많은 부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서는 더 나은 조건 아래서 우리의 부가 어떠할지 아주 희미하게만 어림잡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의 부와 생산력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과 나란히, 일

01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 1766-1834): 영국의 목사이자 경제학자. 인구가 식량 생산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빈곤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주장함.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들과 중간 상인들의 수도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자본이 점점 소수의 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동체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소수 백만장자들의 재산을 수용해서 합법적으로 모두의 유산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의 이런 예측이 사실로 입증되기는 커녕, 정확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기생충 무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주민 30명당 실제로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 나라의 전체 농업 생산량은 700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일한 결과이다. 그리고 광산업과 섬유업이라는 두 거대한 산업 부분에서도 노동자들의 수가 25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

영국에서는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포함해 100만 명이 조금 넘는 노동자들이 전체 섬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광산에서는 90만 명이 못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200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의 산업 인구 조사에 따르면 겨우 400만 명이 조금 넘는 남자, 여자, 아이들이 전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통계학자들은 4천 500만 명의 영국 주민 중 최대

800만 명이 생산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숫자를 부풀려야 한다. 엄밀히 말해 영국에서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수출되는 상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수는 겨우 600만에서 7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곳저곳에서 노동의 가장 좋은 열매를 가져가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일하지 않고도 부당한 이익을 쌓아올리는 주주와 중간상인의 수는 얼마나 될까?

이것이 전부다 아니다. 자본 소유자들은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끊임없이 생산량을 떨어트린다. 지금까지 부자들만 먹었던 맛있는 진미들을 일반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막으려고 다량의 굴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직물과 음식 등이 포함된 수많은 사치품들 역시 굴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분된 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가장 필요한 것들의 생산이 어떤 식으로 제한되고 있는지를 떠올려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수많은 광부는 매일 기꺼이 석탄을 캐내어 추위에 떠는 사

람들에게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광부 중 3분의 1 심지어 2분의 1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3일 이상을 일하지 못하게 금지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석탄 가격을 계속 오르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많은 직공이 직조기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당하고 있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이 누더기를 입고 있으며, 유럽 인구의 4분의 3이 괜찮은 옷들을 갖고 있지 못한데도 그런 생산 제한이 가해진다.

수백 개의 용광로와 수천 개의 공장이 주기적으로 가동을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다른 공장들은 겨우 반나절만 가동되기도 한다. 모든 문명화된 나라에서는 언제나 200만 명 정도 되는 주민이 오직 일만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도 거부당하는 실정이다.

이 수많은 사람이 황무지들을 개척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들이 경작하기에 나쁜 땅을 비옥한 논밭으로 바꾸어서 풍요로운 수확을 얻게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 잘 관리하면서 일한다면, 지금 '영구 목초지'란 이름으로 쓸모 없이 방치되고 있는 수백만 에이커⁰²의 땅에서 5배의 생산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02 에이커: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되는 면적의 단위. 1에이커는 약 4,047㎡이다.

● 현재 국가 군수품 공장을 포함한 산업의 서로 다른 53개의 부문에는 4,013,711명의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다. 그리고 241,530명의 노동자들이 '철도 건설 및 관리국(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Railways)'에서 일하고 있다. 그들의 총 생산량은 1,041,037,000파운드에 이르며 순이익은 406,799,000파운드다.

또한 지금은 에이커 당 약 8부셸⁰³의 밀 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프랑스 남부의 건조지역들 역시 그만큼의 생산을 해낼 수 있다. 그런데도 수많은 분야에서 부를 생산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대담한 개척자가 되는 일을 기뻐할 사람들이 쓸모없이 놓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땅주인, 광산 소유자, 공장 소유주들이 애초에 공동체로부터 빼앗은 자기들의 자본을 터키나 이집트의 채권, 혹은 남미 파타고니아의 금광에 투자하는 편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이집트의 빈농들, 이탈리아의 이민자들, 중국 하류층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노예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생산을 직접적이고 용의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간접적이고 고의가 아닌 제한도 있다. 이 제한은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쓸모없는 일에 낭비하게 만들거나 오직 부자들의 아둔한 허영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만 생산을 제한하는 일을 말한다.

어느 정도의 부가 간접적으로 제한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지를 숫자로 계산하는 일은 불가

03 부셸: 주로 농산물의 무게를 나타내는 데 쓰는 단위로 나라마다 다르다. 본문에서는 영국 부셸을 사용하고 있다. 1영국 부셸은 62파운드, 약 28.133kg이다.

능하다. 물론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었다면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갖추는 데 유용했을지 모른다. 유럽에서 엄청난 금액이 군사비로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 군사비의 유일한 목적은 시장의 통제권을 손에 넣어서 인근 국가들한테는 유럽 상품들을 강제로 팔고, 자국에서는 보다 쉽게 착취를 행하려는 것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관직으로 매년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의 직무는 소수 부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의 경제 활동들을 좌지우지하는 일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재판, 감옥, 경찰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소위 정의라고 하는 이 모든 번거로운 장치는 사실상 아무 효과도 없이 낭비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도시의 빈곤을 아주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면 언제나 범죄율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언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아주 해로운 정치적 신조를 선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이 당파나 저 당파, 이쪽 정치인이나 저쪽 투기꾼 무리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면서 '날조된' 뉴스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낭비되는 모든 노동

역시 고려해 봐야 한다. 여기에는, 부자들이 필요할 때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경찰 집단, 수행원 집단을 유지하는 노동이 있다. 또 저기에는, 사교계의 번덕을 부채질하고 유행을 쫓는 무리의 취향을 타락시키기 위해 낭비되는 노동이 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소비자가 사게 만들거나 과대광고로 조잡한 물건을 강매하느라 낭비되는 노동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에게는 완전히 유해하지만 제조업자한테는 이익이 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노동의 양은 유용한 것들을 충분히 두 배로 생산할 정도이다. 혹은 작업장들과 공장들에 기계를 비치해서 지금 인구의 3분의 2의 사람들한테 부족한 온갖 물품들로 상점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노동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체제에서는 각 나라 생산자들의 4분의 1 정도가 일 년에 서너 달 동안이나 강제로 아무 일도 못하고 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머지 4분의 1의 노동자들은 부자들을 즐겁게 하거나 민중을 착취하는 결과밖에 내지 못하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명국가들이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생산력을 빠르게 증가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존하는 조건들을 이용해

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생산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즉,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경제 체제는 몇 년 안에 유용한 생산물들을 산더미처럼 쌓아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충분하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석탄과 빵과 옷이 있다!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능력을 가장 잘 쓸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여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자.”

그렇다, 모든 이가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은 꿈이 아니다. 물론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도 1에이커의 땅에서 고작 몇 부셀의 수확밖에 얻지 못하던 시절, 농업과 산업에 필요한 온갖 도구를 손으로 직접 만들어 써야 했던 시절에는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동력 모터를 발명했기 때문이다. 모터는 약간의 철과 석탄 몇 자루만으로 말(馬)처럼 힘세고 다루기 쉬운 숙련된 기술을 제공해주고, 가장 복잡한 기계 장치도 작동시킬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모두가 풍요를 누린다는 생각이 실현되면 집들, 목초지들, 경작지들, 공장들, 도로들, 교육 같은 이 막대한 자분을 독점가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유 재산

으로 여겨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

우리 선조들에 의해서 고통스럽게 얻어지고, 건설되고, 만들어지고, 발명된 이 풍요로운 유산은 반드시 공동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류 공통의 관심사가 이 유산으로부터 모두를 위한 최고의 행복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소유를 금지하는 재산 수용이 행해져야 한다. 모두가 좋은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재산 수용은 그 수단이다.

2

‘재산의 수용’, 이 문제는 20세기 사람들 앞에 역사가 제기한 문제이다. 즉, 모두의 좋은 삶에 공헌하는 코뮌주의로 전부 되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률이라는 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그런 상상을 하지 않는다.

부자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즉, 기존의 어떤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가능한 어떤 정치적 변화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들은 사회 혁명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 모두 이 혁명이 곧 닥쳐올 일이고 몇 년 안에 터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19세기 후반의 50여 년 동안 인간의 사고에서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유산 계급에 의해 사실

상 억압받고 있고, 자연스런 발전이 부정당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정신은 이제 격렬하게 그 속박을 부수고 혁명 안에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혁명은 어디에서 오게 될 것인가? 혁명은 자신의 도래를 어떤 식으로 알릴 것인가? 이 질문들에는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다. 미래는 감춰져 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혁명의 신호들을 잘못 해석하지 않는다. 노동자들과 착취자들, 혁명가들과 보수주의자들, 사상가들과 활동가들 모두가 혁명이 바로 가까이 와 있음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이 혁명이라는 천둥번개가 떨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모두는 혁명의 극적인 면을 연구하는 일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혁명의 실제적인 작업을 연구하는 일에는 너무 적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래서 우리는 무대 효과, 말하자면 이 위대한 운동들의 무대 효과만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혁명 최초의 날들의 투쟁과 바리케이트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나 이 투쟁, 처음에 일어나는 충돌은 곧 끝나버릴 것이고 혁명의 진정한 작업은 오로지 낡은 체제가 무너진 뒤에야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사방에서 공격을 당해 힘을 잃고 무력해진 구체제의 지배자들은 반란의 입김으로 곧 쓸려갈 것이다. 1848년 2월 혁명

당시의 프랑스 상황을 살펴보면 며칠이 안 되어 중산층 계급이 옹호한 군주제는 사라져버렸고, 루이 필리프 1세⁰⁴가 승합마차로 도망치는 동안 파리는 벌써 자신의 '시민왕'⁰⁵을 잊어버렸다. 1871년 3월 18일에는 티에르(Thiers)⁰⁶ 정부가 몇 시간 만에 파리를 스스로의 운명에 맡긴 채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1848년과 1871년에는 오로지 반란만이 일어났을 뿐이었다. 민중 혁명이 일어나기도 전에 '구체제'의 지배자들은 놀라울 만큼 재빠르게 사라져버린다. 구체제 지지자들은 나라 밖으로 도망칠 것이고, 어딘가 안전한 곳에서 음모를 꾸미면서 다시 복귀할 방책을 공리할 것이다.

이전의 정부가 사라지고 나면 군대는 여론의 물결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더 이상 지휘관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군대 지휘관들 역시 신중하게, 그리고 몰래 도망칠 것이다. 군대는 끼어들지 않고 중립을 지키거나 반란에 참여할 것

04 루이 필리프 1세(Louis-Philippe 1773-1859): 프랑스의 마지막 국왕. 1830년 7월 혁명으로 왕위에 올랐으나 그가 이끄는 7월 왕정은 점점 보수적이고 친 부르주아적인 정책을 펼쳤으며, 결국 1848년 2월 혁명으로 폐위 당했다.

05 시민왕: 루이 필리프 1세의 별명이다. 이전 국왕들에 비해서 처음에는 검소하게 국가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여졌다.

06 티에르(Adolphe Thiers 1797-1877)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역사가로, 1871년에서 1873년까지 제 3 공화정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다.

이다. 하릴없이 대기하고 있는 경찰은 군중을 진압해야 하는지, 아니면 '코뮌 만세!'를 외쳐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것이다.

한편 어떤 이들은 자기 숙소에 조용히 틀어박혀서 '새로운 정부의 의향을 기다릴 것'이다. 부유한 시민은 집을 싸서 안전한 곳으로 황급히 떠날 것이다. 민중은 남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혁명이 자신의 도착을 알리는 방식이다. 몇몇 큰 마을들에서는 자치 정부인 코뮌이 선포될 것이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즉석에서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공적인 일들에 관해서 격렬하게 토론을 벌일 것이다. 모두가 그것에 관심을 보일 것이다. 지난날 그런 일들에 가장 냉담했던 사람이 어쩌면 가장 열의를 보일 수도 있다. 모든 곳에서 선한 의도와 승리를 확실히 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넘쳐흐를 것이다. 이 시기는 숭고하고 헌신적인 행동들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민중 집단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장엄하고 숭고하다. 하지만 여전히 혁명은 아니다. 오히려, 혁명가의 일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사회주의 정치가들, 급진주의자들, 재능이 있으나 무시당했

던 언론인들, 정치 연설가들은 중산층이든 노동계급이든 상관 없이 모두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시청이나 읍사무소, 관공서들로 서둘러 달려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금박 은박 레이스로 마음껏 치장하고서 행정관청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감탄할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의 새로운 지위에 걸맞게 거드름을 부리면서 명령을 내릴 궁리를 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붉은 장식 띠, 수놓인 모자, 권위적인 몸짓들도 없이 사무실이나 작업장의 동지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겠는가! 나머지 사람들은 공문서에 파묻힌 채 최대한의 의지를 발휘해서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들은 법률을 지어내고 허풍스런 단어들이 가득한 법령을 공포하겠지만, 아무도 그 법을 실행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갖지 못한 권위를 스스로에게 부여하려고 그들은 옛 정부에서 쓰인 상벌 조항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임시 정부' '공공 안전 위원회' '시장' '시의원장' '치안 위원' 등의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선거로 뽑혔거나 지명이 된 그들은 위원회나 공동체 평의회를 소집할 것이고, 그곳에서는 서로 다른 유파들을 대표하는 10~2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다. 이들이 대표하는 것

은 흔히들 말하는 수많은 ‘개인 예배당’이 아니라, 혁명의 전망, 의미, 목표에 관한 서로 다른 많은 생각들이다. 현실적 개혁주의자들, 집산주의자들, 급진주의자들, 자코뱅파⁰⁷들, 블랑키주의자⁰⁸들이 서로를 밀쳐대면서 말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다. 정직한 사람들이 야심가들과 뒤죽박죽 섞인 채 물려들 것이다.

그런데 야심가들의 유일한 꿈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과 같은 출신의 대중을 경멸하며 걷어찰 것이다. 온갖 사람들이 완전히 정반대되는 견해를 갖고서 함께 모일 것이고, 고작 하루 정도나 지속될 다수파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덧없는 하루살이 연합을 맺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말다툼을 하고 서로를 반동분자, 권위주의자, 불량배라고 부르면서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결국 하찮은 것들이나 질질 끌면서 토론하게 될 것이고 과장된 성명서 이상의 것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운동의 진정한 힘이 거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 모

07 자코뱅파: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가장 유명한 과격파 정치 단체로 극단적인 평등주의와 폭력정치로 알려졌다. 1793년 중반부터 1794년 중반까지 혁명정부를 이끌었고 로베스피에르 등이 주도했다.

08 블랑키주의자: 프랑스 급진주의의 전설적인 순교자로 명성이 높은 블랑크(Blanque: 혁명이론가이며, 민중봉기의 실천가)를 지지하는 사람들

두는 스스로에게 대단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연극 무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혁명은 아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민중은 고통을 받는다. 공장들은 하릴없이 멈춰 서 있고 작업장도 문을 닫았다. 상업은 정지 상태에 있다. 노동자들은 이전에 받았던 빈약한 임금조차도 받지 못한다. 음식 가격은 나날이 비싸진다. 언제나 그랬듯, 엄청난 위기를 속에서도 민중은 끈기 있게 기다릴 것이다. 1848년에 프랑스 민중은 “우리는 궁핍한 이 석 달을 공화국에 봉사하는 기간으로 내놓는다”라고 말했다. 반면 ‘그들의 대표자들’과 새로운 정부의 신사들은 가장 하찮것없는 하급 관리들까지도 꼬박꼬박 봉급을 받아갔다.

민중은 고통받는다. 어린아이 같은 민음과 평민의 선한 기질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믿는다. 그들은 ‘저쪽에’ 있는 의회에서, 시청이나 읍사무소에서, 공공 안전 위원회에서 자기들의 복지 문제를 의논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저쪽에’ 있는 그들은 민중의 복지를 제외한 하늘 아래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1793년에 기근이 프랑스를 휩쓸어서 프랑스 대혁명을 망치는 동안, 민중은 비참하게 죽어나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는 화려한 보석들로 치장한 여성들을 태운 호화로운 마차가 줄지어 늘어섰고, 로베스피에르⁰⁹는 영국 헌법에 관한 자기의 논문을 논의하라고 자코뱅과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있었다. 1848년 상업의 전반적인 중단 때문에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동안, 프랑스의 임시 정부와 국민의회는 민중이 이 끔찍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걱정하기는커녕 군인 연금과 형무소 노역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다.

그리고 1871년 파리 코뮌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이센의 대포 아래에서 태어나 고작 70일 밖에 존속하지 못했던 파리 코뮌도 이와 똑같은 실수를 했다고 말이다. 이 실수는 혁명의 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한, 혁명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즉, 하루에 고작 15펜스를 받는 사람은 방위군으로 싸우면서 동시에 가족을 부양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

해하지 못한 실수이다. 민중은 고통 받으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어려움들로부터 벗어날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09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 1758-1794):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유력한 정치인으로 자코뱅파를 주도했다. 루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독립적인 소생산자들이 주도하는 공화제를 주장했다. 단두대와 공포정치 시대를 열었으며 자신도 나중에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